



브라질 탄소시장 활성화 정책



브라질은 광활한 산림과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한 국가로 다양한 CDM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는 적절한 여건을 가지고 있다. 유럽의 CDM 전문 컨설팅 업체인 Natsource 사는 CDM 사업을 통해 가장 많은 탄소 크레디트를 만들 수 있는 국가로 중국, 인도와 함께 브라질을 지목한 바 있을 정도로 브라질은 CDM 프로젝트 투자에 적합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

브라질 정부는 외국자본의 투자 유치, 선진국의 기술이전, 고용창출, 친환경적 경제 개발 등의 장점이 있는 CDM 사업을 적극 장려하고 있으며, 1999년 세계 최초로 CDM 국가승인기구(DNA - Designated National Authorities)를 설립하는 등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브라질 상공부는 선물거래소(BM&F)와 공동으로 온실가스 감축 브라질 탄소거래시장(MBRE-Mercado Brasileiro de Reduções de Emissões)을 개설하여 증권거래소에서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2005년 9월 중순에는 CDM 사업 전자등록시스템(BM&F Carbon Facility)도 개설하였다.

동 시스템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기 등록된 프로젝트를 열람한 후 EOI(Express of Interest)을 제출함으로써 탄소 크레디트 구입 혹은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브라질은 2007년부터 쓰레기 소각 열을 활용한 CDM 프로젝트를 통해 축적한 탄소 크레디트를 온라인 경매에 붙여 거래하고 있다.

세계 3위권의 CDM 프로젝트 보유

현재까지 브라질 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CDM 분야의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CDM 분야 투자액

은 정확히 파악되지 않으나 문화·지리적으로 영향이 큰 유럽 국가들의 투자액이 가장 큰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신규 투자 외에도 이미 브라질에 진출해 있는 외국 자본으로 설립된 업체들의 CDM 분야 재투자도 많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브라질 정부는 예로부터 외국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해서 별도의 혜택을 부여하지 않고 모든 투자유치 정책은 브라질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최근에 와서는 CDM 사업 참가를 장려하기 위해서 관련 기업들에게 탄소 크레디트 생성으로 인한 수익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등의 인센티브 혜택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브라질 정부는 브라질 경제사회 개발은행을 비롯한 국책은행을 통해 CDM 사업에 참가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저리융자로 금융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브라질은 바이오매스(Bio Mass)를 사용한 전력생산, 쓰레기 소각 열 및 가스를 사용한 전력 생산, 소형 수력발전소, 풍력 발전 등의 분야에서 다수의 CDM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기후변화연합(UNFCCC) 자료에 따르면 2010년 7월말 현재 전 세계에서 추진 중인 CDM 사업 2307건 중 브라질에서 시행 중인 사업은 174건으로 중국, 인도에 이어 세계의 3위를 차지하고 있다.

브라질의 CDM 투자 유치 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외국자본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브라질에서 생산된 탄소 거래 시장의 활성화 및 관련 시스템 정비 사업과 외국 투자 기업의 파트너가 되는 브라질 기업의 CDM 사업 참여 장려, CDM 프로젝트에 대한 파이낸싱과 같은 국내기업 육성 지원 정책을 들 수 있다.

탄소 거래 시장 활성화 정책

1) 탄소시장의 운영

브라질 상공부는 선물거래소(BM&F)와 공동으로 온실가스 감축 브라질 탄소거래시장(MBRE-Mercado Brasileiro de Reduções de Emissões)을 개설하여 증권거래소에서 함께 운영하고 있다. (www.bmf.com.br)

2) CDM 사업 전자등록시스템(BM&F Carbon Facility) 운영

2005년 9월 중순에는 CDM 사업 전자등록시스템(BM&F Carbon Facility)을 개설하였으며 이를 통해서 브라질 기업들의 CDM 사업에 참가를 장려하는 동시에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는 CDM 프로젝트 사업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전자등록시스템을 통해서 등록된 프로젝트는 CDM 전문 컨설팅 회사들을 통해서 사업 타당성이 여부를 기술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 해줄 뿐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들은 등록된 프로젝트에 EOI(Express of Interest)을 제출함으로써 탄소 크레디트 구입 혹은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3) 탄소 온라인 경매제도

탄소 온라인 경매제도는 2007년 9월 처음 도입된 제도로 CDM 사업으로 축적된 탄소 크레디트를 인터넷을 전자 경매를 통해서 판매할 수 있게 한 제도이다. 동 제도의 도입에 따라 브라질에서는 편리하고 저렴한 비용(수수료 거래액의 0.25%)으로 탄소 크레디트를 확보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까지 두 번의 경매를 통해 2,638만 유로에 달하는 152만 톤의 탄소 크레디트가 거래되었다.

1차 경매로 2007년 9월 26일 브라질에서 가장 큰 CDM 프로젝트인 Bandeirante 쓰레기 매립장(Aterro Sanitário Bandeirantes) 사업을 통해서 확보된 808,450 톤 상당의 탄소 크레디트가 온라인을 통해 거래되었는데 1,300만 유로(R\$3,400 만)에 판매되었다. 2008년 실시된 2차 경매에는 Bandeirante 쓰레기 매립장사업과 Sao Joao 쓰레기 매립장을 통해서 확보된 713,314 톤 상당의 탄소 크레디트가 온라인 경매에 붙여졌다. 총 10개 업체가 참가한 가운데 최종적으로 스위스 업체 Mercuria Energy Trading 사가 1368만 유로를 지불하고 경매에 붙여진 크레디트 전량을 구매하였다.

상파울루 시장의 당초 계획에 따라 제 3차 카본 크레디트 경매는 2009년에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를 비롯한 여러 가지 경제상황 악화로 인해 무산되었다. 이후 상파울루 시장은 2010년 6월 무렵 3차 경매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올해 초 발표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3차 경매는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차원의 탄소시장 활성화 움직임도 활발

민간차원의 탄소시장 활성화 움직임도 활발한데 그 대표 주자는 브라질 탄소 크레디트 협회(ABEMC : Associação Brasileira de Empresas do Mercado de Carbono)이다. 브라질 탄소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업체로 구성된 ABEMC는 2008년에 설립되었으며 현재 22개의 업체를 회원으로 보유하고 있다.

동 협회는 회원사의 권익을 위해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브라질 정부 및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접촉 주선, 상담회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회원사 중에는 브라질 국내 탄소 크레디트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에너지 업체, CDM 프로젝트와 카본 크레디트 컨설팅 업체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4위국가로 CDM 사업개발 절실해

브라질은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 세계 4위 국가이나 현재까지 온실가스 감축의무는 없다. 하지만 최근 들어 개도국들도 온실가스 의무 감축에 동참해야 된다는 국제사회의 압력을 받고 있어 브라질 정부는 바이오 에탄올 사용, 바이오매스(Biomass) 연료 활용, 삼림훼손 자제, CDM 사업 등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고 있다. 또한 대체에너지를 활용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PROINFA, 바이오디젤의 사용을 권장하는 PNPB, 에너지 효율을 높여 공해가스 배출을 줄이는 PROCEL 등 다양한 환경보호 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300여건 이상의 CDM 사업 유치를 통해 온실가스도 줄이고 탄소 크레디트도 축적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효과를 얻고 있다.

브라질 상공부는 선물거래소(BM&F)와 공동으로 탄소거래시장(MBRE-Mercado Brasileiro de Reduções de Emissões)을 개설하여 상파울루 증권거래소에서 함께 운영하고 있다. 또한 상파울루 시장은 이미 온라인 탄소 크레디트 경매를 2차례 실시하는 등 현재 브라질 탄소 시장은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향후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의무는 점차 강화될 전망으로 이에 따라 브라질 탄소 시장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K]